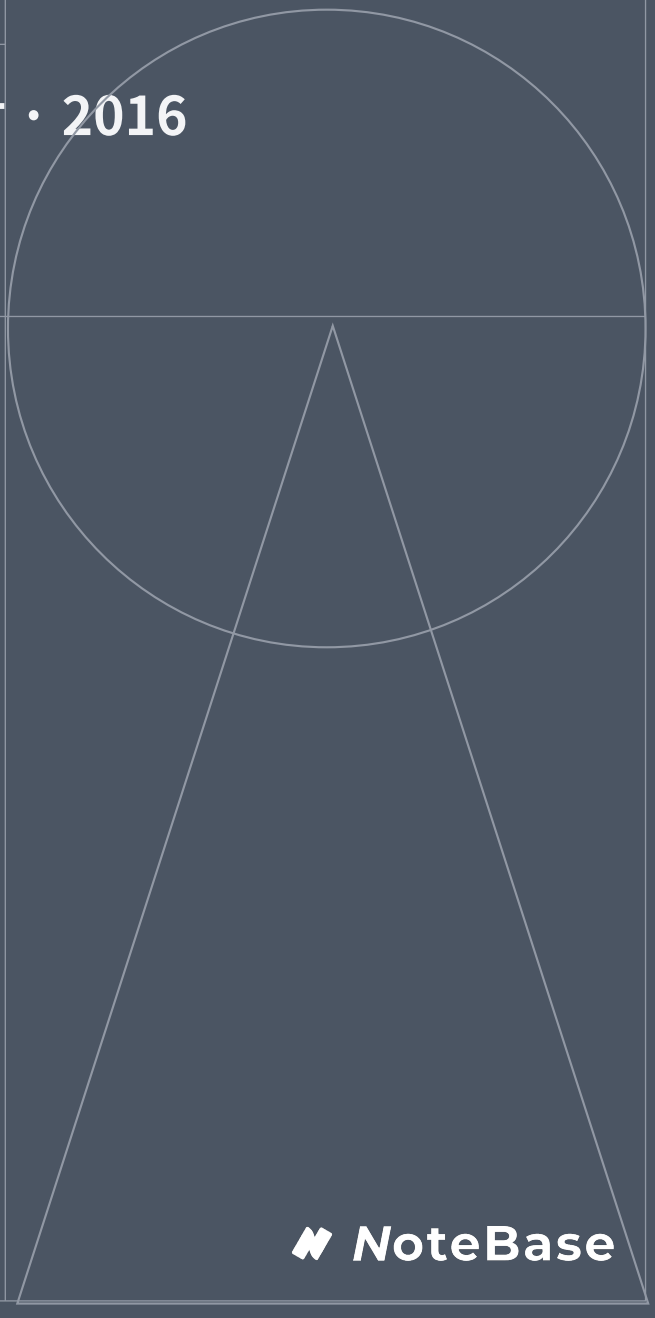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가직/9급 · 회계학 · 2016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가직/9급 · 회계학 · 2016

공무원/국가직/9급 · 회계학 · 2016

문 1. (주)한국의 2016년 재고자산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주)한국의 2016년 매출액은?

◯ 기초상품재고 ₩2,000
◯ 당기매입액 ₩10,000
◯ 기말상품재고 ₩4,000
◯ 매출원가에 가산되는 이익률 10%

① ₩6,600
② ₩7,200
③ ₩8,000
④ ₩8,800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매출원가는 기초상품재고와 당기매입액의 합계에서 기말상품재고를 뺀 8,000원이다. 여기에 **매출원가의 10%**인 이익 800원을 더하면 매출액은 8,800원이다.

계산 과정

매출원가 계산: 기초상품재고 2,000원과 당기매입액 10,000원을 합하면 당기에 판매할 수 있었던 상품의 원가는 12,000원이다. 이 중 **기말에 남아 있는 상품의 원가** 4,000원을 제외하면, 판매된 상품의 원가인 매출원가는 2,000 + 10,000 − 4,000 = 8,000원이다.

이익 계산: 주어진 10%는 **매출원가를 기준으로 가산하는 이익률**이다. 따라서 매출총이익은 8,000 × 10% = 800원이다.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이익률로 해석하지 않는다.

매출액 계산: 매출액은 판매된 상품의 원가에 매출총이익을 더한 금액이다. 따라서 2016년 매출액은 8,000 + 800 = 8,800원으로, ④의 금액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2. 다음 자료를 토대로 계산한 (주)한국의 정확한 당좌예금 잔액은?

◯ (주)한국의 조정 전 당좌예금 계정 잔액 ₩12,200
◯ 은행 예금잔액증명서 상 잔액 ₩12,500
◯ (주)한국에서 발행하였으나
은행에서 미인출된 수표 ₩2,000
◯ (주)한국에서 입금처리하였으나
은행에서 미기록된 예금 ₩700
◯ (주)한국에서 회계처리하지 않은 은행수수료 ₩500
◯ 타회사가 부담할 수수료를
(주)한국에 전가한 은행의 오류 ₩200
◯ (주)한국에서 회계처리하지 않은 이자비용 ₩300

① ₩10,700
② ₩11,400
③ ₩13,400
④ ₩14,100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회사 장부에 빠진 **은행수수료 500원과 이자비용 300원을 차감**해야 한다. 조정 전 잔액 12,200원에서 이를 빼면 정확한 당좌예금 잔액은 11,400원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은행계정조정은 회사 장부와 은행 기록 사이의 미반영 거래와 오류를 조정하여 같은 당좌예금 잔액을 구하는 과정이다. 각 항목이 어느 쪽 기록에 이미 반영되어 있는지 구분한다.

회사 장부 기준: 은행수수료 500원과 이자비용 300원은 은행에서 차감했지만 회사가 아직 회계처리하지 않은 금액이므로, **장부 잔액에서 차감**한다. 미인출수표 2,000원과 은행 미기록 예금 700원은 회사가 이미 기록했으므로 장부에서 다시 조정하지 않는다. 타회사 수수료 200원을 잘못 부담시킨 것은 은행의 오류이므로 회사 장부의 조정항목이 아니다.
조정 후 장부 잔액 = 12,200 − 500 − 300 = 11,400원

은행 잔액 기준: 미인출수표 2,000원은 회사가 발행하여 장부에서는 이미 차감했지만 은행에서는 아직 인출되지 않았으므로, 은행 잔액에서 뺀다. 은행 미기록 예금 700원은 회사가 입금처리했지만 은행 잔액에는 빠져 있으므로 더한다. 타회사 수수료 200원은 은행이 잘못 차감한 금액이므로 **은행 잔액에 다시 더한다**. 은행수수료 500원과 이자비용 300원은 은행 잔액에 이미 반영되어 있으므로 다시 빼지 않는다.
조정 후 은행 잔액 = 12,500 − 2,000 + 700 + 200 = 11,400원

양쪽에서 조정한 잔액이 모두 11,400원으로 일치하며, 이는 ②의 금액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3.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기업의 재무제표는 발생기준 회계만을 사용하여 작성하며, 현금기준 회계는 사용하지 않는다.

② 포괄손익계산서 상의 비용은 성격별 분류법과 기능별 분류법 중에서 매출원가를 다른 비용과 분리하여 공시하는 기능별 분류법만으로 표시해야 한다.

③ 재무제표 표시에 있어 반드시 유사한 항목은 통합하고, 상이한 성격이나 기능을 가진 항목은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④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요구하거나 허용하지 않는 한 자산과 부채 그리고 수익과 비용은 상계처리하지 아니한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자산과 부채, 수익과 비용은 서로 차감한 순액으로 표시하면 각각의 규모가 가려질 수 있다. 따라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만** 상계하고, 그 밖에는 각각 표시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발생기준은 현금의 수취·지급 시점이 아니라 거래나 사건이 발생한 시점에 그 영향을 인식하는 방식이다. 재무제표는 원칙적으로 발생기준으로 작성하지만, **현금흐름정보는 예외**이다. 현금흐름표는 일정 기간의 실제 현금 및 현금성자산의 유입과 유출을 보여 주므로, 모든 재무제표에 발생기준만 사용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② X: 비용은 성격별 분류법과 기능별 분류법 중 **신뢰성 있고 더욱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분류한다. 성격별 분류법은 감가상각비·종업원급여처럼 비용 자체의 성격에 따라, 기능별 분류법은 매출원가·판매비·관리비처럼 기업 내 수행 기능에 따라 묶는다. 기능별 분류법을 적용하면 매출원가를 다른 비용과 분리하여 공시하지만, 기능별 분류법만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③ X: 항목의 통합과 구분에는 **중요성 판단**이 필요하다. 유사한 항목은 중요성에 따라 분류하고 중요한 각 분류는 구분하여 표시한다. 성격이나 기능이 다른 항목도 중요하지 않다면 반드시 구분하여 표시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유사하면 반드시 통합하고 다르면 반드시 구분한다는 무조건적인 설명은 틀리다.

④ O: 상계는 자산과 부채 또는 수익과 비용을 서로 차감하여 순액으로 표시하는 것이다. 상계하면 각각의 금액과 거래의 성격을 파악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상계하지 않는다**. 다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상계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상계한다.

NoteBase

문 4.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에서 규정한 유용한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목적적합한 재무정보는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도록 할 수 있다.

② 정보이용자들이 미래 결과를 예측하기 위해 사용하는 절차의 투입요소로 재무정보가 사용될 수 있다면, 그 재무정보는 예측가치를 갖는다.

③ 중립적 서술은 재무정보의 선택이나 표시에 편의가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중립적 정보는 목적이 없고 행동에 대한 영향력이 없는 정보를 의미한다.

④ 완전한 서술은 필요한 기술과 설명을 포함하여 정보이용자가 서술되는 현상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는 것이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③의 '목적이 없고 행동에 대한 영향력이 없는 정보'라는 부분이 잘못되었다. 중립성은 **정보의 선택이나 표시에 편향이 없는 것**을 뜻하며, 중립적인 정보도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선지별 해설

① O: 목적적합성은 재무정보가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차이를 가져올 수 있는 능력**이다. 예측가치나 확인가치 또는 둘 모두를 가진 정보가 이에 해당한다. 모든 이용자가 실제로 그 정보를 사용하거나 결정을 바꾸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 O: 예측가치는 재무정보가 **미래 결과를 예측하는 절차의 투입요소**로 사용될 수 있을 때 갖는 특성이다. 정보 자체가 미래의 예측치일 필요는 없다. 예를 들어 당기 매출액도 이용자가 미래 매출액을 예측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③ X: 중립적 서술이 정보의 선택이나 표시에 편향이 없다는 뜻이라는 앞부분은 맞다. 그러나 중립성은 **목적이나 행동에 대한 영향력이 없다는 뜻이 아니다**. 특정한 반응을 유도하려고 정보를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조작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편향 없이 제공된 정보도 이용자가 투자나 대출 여부를 판단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중립성과 목적적합성은 양립한다.

④ O: 완전한 서술은 이용자가 해당 현상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 설명까지 포함**한다. 금액만 제시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며, 자산의 성격이나 그 금액이 어떤 측정기준에 따른 것인지 등 이해에 필요한 정보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

NoteBase

문 5.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상 건물이 있는 토지를 일괄취득하여 구 건물을 계속 사용할 경우 일괄구입가격을 토지와 건물의 공정가액에 따라 배분한다.

② 토지의 취득 시 중개수수료, 취득세, 등록세와 같은 소유권 이전비용은 토지의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③ 기계장치를 취득하여 기계장치를 의도한 용도로 사용하기 적합한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지출한 시운전비는 기계장치의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④ 건물 신축을 목적으로 건물이 있는 토지를 일괄취득한 경우, 구 건물의 철거비용은 신축 건물의 취득원가에 가산한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신축을 위해 처음부터 철거할 목적으로 취득한 구 건물의 철거비용은 **토지의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이는 새 건물을 짓는 비용이 아니라 토지를 의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비용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구 건물을 계속 사용한다면 토지와 건물을 각각 자산으로 인식한다. 일괄구입가격은 **토지와 건물의 상대적 공정가액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각 자산의 취득원가를 정한다.

② O: 토지의 취득원가에는 매입대금뿐 아니라 **토지 취득에 직접 관련되는 부대비용**도 포함한다. 중개수수료, 취득세, 등록세 등은 토지를 취득하고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해 발생한 비용이므로 토지의 취득원가에 가산한다.

③ O: 기계장치의 취득원가에는 경영자가 의도한 방식으로 가동할 수 있는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가 포함된다. 선지의 시운전비는 **의도한 용도로 사용하기 적합한 상태**로 만드는 데 필요한 지출이므로 기계장치의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④ X: 건물 신축을 위해 기존 건물을 철거할 목적으로 토지와 건물을 일괄취득하면, 구 건물의 철거는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구 건물의 철거비용은 '신축 건물의 취득원가'가 아니라 **토지의 취득원가**에 가산한다. 구 건물을 계속 사용하는 ①의 경우와 달리, 처음부터 철거할 목적이었다는 점이 원가의 귀속을 결정한다.

NoteBase

문 6. 회계 기말에 행할 결산수정 사항이 아닌 것은?

① 기중에 사용된 소모품 금액을 소모품 계정으로부터 소모품비 계정으로 대체한다.

② 거래 중인 회사의 부도로 대손이 확정된 매출채권에 대해 대손충당금과 상계처리한다.

③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인식한다.

④ 실지재고조사법에 따라 상품에 대한 매출원가를 인식한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대손이 확정된 매출채권을 대손충당금과 상계하는 것은 **대손 확정 시 기록하는 거래**이다. 기말에 회수불능 예상액을 추정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조정**하는 결산수정과 구별한다.

선지별 해설

결산수정은 기말에 당기의 수익·비용과 자산·부채가 적절히 표시되도록 장부를 조정하는 절차이다. 기간 중 사용한 자산을 비용으로 대체하거나, 아직 기록하지 않은 당기 비용을 인식하는 처리가 이에 해당한다.

① O: 소모품을 구입할 때 자산인 소모품 계정에 기록했다면, 기말에는 **당기에 사용한 금액만큼 비용으로 대체**해야 한다. 차변에 소모품비, 대변에 소모품을 기록하여 사용액은 당기 비용으로, 남은 소모품은 자산으로 표시한다.

② X: 부도로 대손이 확정된 매출채권은 차변에 대손충당금, 대변에 매출채권을 기록하여 제거한다. 이 상계처리 자체는 적절하지만, **대손 확정 시 기록하는 거래**이므로 기말 결산수정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말 결산수정에 해당하는 것은 남아 있는 매출채권의 회수불능 예상액을 추정하여 대손상각비와 대손충당금을 인식·조정하는 처리이다.

③ O: 건물의 취득원가 중 감가상각대상금액은 내용연수에 걸쳐 비용으로 배분한다. 기말에는 **당기에 귀속되는 감가상각비**를 인식하기 위해 차변에 감가상각비, 대변에 감가상각누계액을 기록한다. 이는 건물 사용에 따른 당기 비용을 반영하는 결산수정이다.

④ O: 실지재고조사법은 상품을 판매할 때마다 매출원가를 기록하지 않고, **기말 실지재고조사로 확인한 재고액**을 이용하여 매출원가를 결정한다. 기초상품재고액과 당기순매입액을 합친 판매가능상품원가에서 기말상품재고액을 빼면 당기에 판매된 상품의 원가가 된다. 이를 기말에 매출원가로 인식하는 처리는 결산수정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7. (주)한국은 2015년 4월 1일 기계장치를 ₩80,000에 취득하였다. 이 기계장치는 내용연수가 5년이고 잔존가치가 ₩5,000이며, 연수합계법에 의해 월할로 감가상각한다. (주)한국이 이 기계장치를 2016년 10월 1일 ₩43,000에 처분한 경우 기계장치 처분손익은? (단, (주)한국은 원가모형을 적용한다)

① 처분손실 ₩2,000

② 처분이익 ₩2,000

③ 처분손실 ₩3,000

④ 처분이익 ₩3,000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연수합계법으로 취득 후 첫 12개월과 다음 6개월을 나누어 감가상각하면 감가상각누계액은 35,000원이다. 처분 시 장부금액 45,000원보다 처분대금 43,000원이 적으므로 **처분손실 2,000원**이 발생한다.

계산 과정

1. 감가상각 대상금액과 상각률
감가상각 대상금액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뺀 80,000 − 5,000 = 75,000원이다. 연수합계법은 이 금액에 매년 줄어드는 잔여내용연수의 비율을 곱하는 방법이다. 내용연수 5년의 연수합계는 5 + 4 + 3 + 2 + 1 = 15이므로, 첫 1년의 상각률은 5/15, 다음 1년은 4/15이다.

2. 처분일까지의 감가상각누계액
취득일부터 경과한 기간을 기준으로 상각률을 적용한다. 2015년 4월 1일부터 2016년 3월 31일까지는 첫 12개월이므로 감가상각비는 $75{,}000 \cdot \frac{5}{15} = 25{,}000$원이다. 2016년 4월 1일부터 처분 직전인 9월 30일까지는 다음 1년 중 6개월이므로 감가상각비는 $75{,}000 \cdot \frac{4}{15} \cdot \frac{6}{12} = 10{,}000$원이다. 따라서 처분일까지 18개월의 감가상각누계액은 25,000 + 10,000 = 35,000원이다.

3. 장부금액과 처분손익
원가모형에서는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하므로 처분 시 장부금액은 80,000 − 35,000 = 45,000원이다. 처분손익은 처분대금에서 장부금액을 뺀 금액으로, 43,000 − 45,000 = −2,000원이다. **처분대금이 장부금액보다 2,000원 적으므로** 처분손실 2,000원이 발생하며, 이는 ①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8. 다음 자료를 토대로 계산한 (주)한국의 당기순이익은?

◯ 평균총자산액 ₩3,000
◯ 부채비율 (= 부채/자본) 200%
◯ 매출액순이익률 20%
◯ 총자산회전율 (평균총자산 기준) 0.5회

① ₩100
② ₩200
③ ₩300
④ ₩400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총자산회전율로 구한 매출액은 1,500원이며, 여기에 **매출액순이익률 20%**를 적용하면 당기순이익은 300원이다.

계산 과정

매출액 계산: 총자산회전율은 평균총자산으로 매출을 얼마나 창출했는지를 나타내며,
총자산회전율=매출액평균총자산액이다. 이 문제는 **평균총자산 기준**의 회전율을 주었으므로, 매출액은 3,000 × 0.5 = 1,500원이다.

당기순이익 계산: 매출액순이익률은 매출액 중 당기순이익이 차지하는 비율로,
매출액순이익률=당기순이익매출액이다. 따라서 매출액 1,500원의 20%가 당기순이익이므로, 1,500 × 20% = 300원이다.

부채비율의 처리: 부채비율 200%는 부채가 자본의 2배라는 뜻이다. 위 계산에서는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을 두 비율로 바로 구할 수 있으므로, **부채나 자본을 따로 계산할 필요가 없다**.

계산한 당기순이익 300원은 ③의 금액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9. 사채발행차금을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할 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이자율은 0보다 크다)

① 할증발행 시 상각액은 매기 감소한다.

② 할인발행 시 이자비용은 매기 증가한다.

③ 할인발행 시 상각액은 매기 증가한다.

④ 할증발행 시 이자비용은 매기 감소한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할증발행하면 사채 장부금액이 점차 감소하여 이자비용도 줄어든다. 현금이자 지급액은 일정하므로, 현금이자에서 이자비용을 뺀 **할증발행차금의 기간별 상각액은 매기 증가**한다.

선지별 해설

유효이자율법에서는 이자비용을 '기초 사채 장부금액 × 유효이자율'로 구한다. 매기 지급하는 현금이자는 '액면금액 × 표시이자율'로 일정하다. 유효이자율이 0보다 크므로 장부금액의 증감 방향에 따라 이자비용도 같은 방향으로 변한다.

① X: 할증발행 시 이자비용은 현금이자 지급액보다 작고, 그 차이인 '현금이자 − 이자비용'을 할증발행차금 상각액으로 처리한다. 상각할 때마다 사채 장부금액이 감소하므로 다음 기의 이자비용도 감소한다. 따라서 일정한 현금이자와의 차이는 커져 **기간별 상각액은 매기 증가**한다. 줄어드는 것은 미상각 할증발행차금의 잔액이다.

② O: 할인발행 시 이자비용은 현금이자 지급액보다 크다. 그 차이를 할인발행차금 상각액으로 처리하여 사채 장부금액에 더하므로, 장부금액은 점차 액면금액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증가한 기초 장부금액에 같은 유효이자율을 적용**하므로 이자비용은 매기 증가한다.

③ O: 할인발행차금 상각액은 '이자비용 − 현금이자'이다. 할인발행 시 이자비용은 매기 증가하는 반면 현금이자 지급액은 일정하므로, 둘의 차이인 **기간별 상각액도 매기 증가**한다.

④ O: 할증발행 시 할증발행차금의 상각액만큼 사채 장부금액이 감소한다. 이자비용은 기초 장부금액에 유효이자율을 곱한 금액이므로, **장부금액이 감소하면 이자비용도 매기 감소**한다.

NoteBase

문 10. (주)한국은 내부보고 목적으로 현금기준에 따라 순이익을 산출한 후 이를 발생기준으로 수정하여 외부에 공시하고 있다. (주)한국의 현금기준 순이익이 ₩55,000일 경우, 다음 자료를 토대로 계산한 발생기준 순이익은? (단, 법인세효과는 무시한다)

<재무상태표>	기초금액	기말금액
매출채권	₩15,000	₩20,000
매입채무	₩25,000	₩32,000
미수수익	₩10,000	₩8,000

<포괄손익계산서>	당기발생금액
감가상각비	₩3,000

① ₩48,000
② ₩54,000
③ ₩56,000
④ ₩59,000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현금기준 순이익을 발생기준으로 바꾸려면 **현금 수수 시점과 수익·비용의 귀속 시점 차이**를 조정해야 한다. 매출채권 증가액을 더하고 매입채무 증가액, 미수수익 감소액과 감가상각비를 빼면 발생기준 순이익은 48,000원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현금기준은 현금을 받거나 지급할 때 수익과 비용을 반영하지만, 발생기준은 현금 수수 여부와 관계없이 당기에 귀속되는 수익과 비용을 반영한다. 현금기준 순이익 55,000원에서 다음 항목을 조정하며, 법인세효과는 무시한다.

매출채권: 기초 15,000원에서 기말 20,000원으로 5,000원 증가했다. 이는 현금 회수액보다 발생기준 매출액이 5,000원 많다는 뜻이므로, **수익 차이 5,000원을 가산**한다.

매입채무: 기초 25,000원에서 기말 32,000원으로 7,000원 증가했다. 제시된 자료에서 매입채무 증가는 현금 지급액보다 발생기준으로 반영할 비용이 7,000원 많음을 뜻한다. 따라서 **비용 차이 7,000원을 차감**한다.

미수수익: 수익은 발생했으나 아직 받지 않은 금액이다. 기초 10,000원에서 기말 8,000원으로 2,000원 감소했으므로, 현금 수취액이 당기 발생 수익보다 2,000원 많다. **당기 수익을 초과한 수취액 2,000원을 차감**한다.

감가상각비: 당기 발생액 3,000원은 자산의 사용 등에 따른 원가를 당기 비용으로 배분한 금액이다. **당기 현금 지급을 수반하지 않는 비용**이어서 현금기준 순이익에는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발생기준으로 전환할 때 3,000원을 차감한다.

발생기준 순이익 = 55,000 + 5,000 − 7,000 − 2,000 − 3,000 = 48,000원이다. 이는 ①의 48,000원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11.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재정상태표 요소의 구분과 표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정상태표는 자산, 부채, 순자산으로 구성되며, 자산 항목과 부채 또는 순자산 항목을 상계하지 않고 총액으로 표시한다.

② 자산은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유산자산, 무형자산 및 기타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한다.

③ 부채는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장기충당부채 및 기타 비유동부채로 구분한다.

④ 순자산은 기본순자산, 적립금 및 잉여금, 순자산조정으로 구분한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②의 '유산자산'은 **'사회기반시설'**로 고쳐야 한다. 이 문항이 전제한 개정 전 기준에서 유산자산은 재정상태표에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고, 그 종류와 현황 등을 **필수보충정보로 공시**한다.

선지별 해설

이 문항은 2025년 1월 1일 시행된 자산·부채 분류 개정 전의 규정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① O: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재정상태표는 자산, 부채 및 순자산으로 구성된다. 제8조제2항은 이들을 **상계하지 않고 총액으로 표시**하도록 한다. 자산과 부채를 서로 차감한 금액만 표시하면 보유 자원과 부담 의무의 규모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② X: 개정 전 제9조제2항의 자산 분류는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사회기반시설**, 무형자산 및 기타 비유동자산이다. 도로·철도·항만 등 국가의 기반을 이루는 시설이 사회기반시설에 해당한다. 선지는 사회기반시설을 빼고 유산자산을 넣었다. 개정 전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정부가 영구히 보존해야 할 역사적·자연적·문화적·교육적·예술적 가치를 지닌 유산자산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고 필수보충정보로 공시**한다.

③ O: 개정 전 제17조제2항은 부채를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장기충당부채 및 기타 비유동부채로 구분한다. 유동부채는 재정상태표일부터 1년 이내에 상환해야 하는 부채이고, 장기차입부채는 1년 후에 만기가 되는 확정부채이다. 장기충당부채는 **지출시기 또는 지출금액이 불확실한 부채**이며, 기타 비유동부채는 앞의 세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부채이다.

④ O: 제23조제1항에 따라 순자산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이며, 기본순자산, 적립금 및 잉여금, 순자산조정으로 구분한다. 기본순자산은 순자산에서 적립금 및 잉여금과 순자산조정을 제외한 금액이다. 자산과 부채의 차액을 산출하는 것은 순자산의 측정이며, 자산과 부채를 상계하여 표시하는 것과 구별된다.

NoteBase

문 12. (주)대한은 2016년에 처음 회계감사를 받았는데, 기말상품재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다. 각 연도별로 (주)대한이 보고한 당기순이익이 다음과 같을 때, 2016년의 오류 수정 후 당기순이익은? (단, 법인세효과는 무시한다)

연도	당기순이익	기말상품재고 오류
2014년	₩15,000	₩2,000(과소평가)
2015년	₩20,000	₩3,000(과소평가)
2016년	₩25,000	₩2,000(과대평가)

① ₩25,000

② ₩23,000

③ ₩22,000

④ ₩20,000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2015년 말 재고의 과소평가는 2016년 기초재고를 줄이고, 2016년 말 재고의 과대평가는 기말재고를 늘려 모두 **2016년 매출원가를 과소계상**하게 한다. 보고된 순이익에서 두 오류의 영향 5,000원을 차감하면 수정 후 당기순이익은 **20,000원**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매출원가는 기초상품재고에 당기순매입액을 더하고 기말상품재고를 빼서 구한다. 따라서 **기초재고가 적게 계상되거나 기말재고가 크게 계상되면** 매출원가가 줄고 당기순이익이 늘어난다. 법인세효과는 무시하므로 매출원가의 오류 금액만큼 순이익을 반대 방향으로 수정한다.

2015년 말 재고 오류: 표의 2015년 기말상품재고는 3,000원 과소평가되어 있으며, 이 금액이 그대로 **2016년 기초재고의 과소평가**로 이어진다. 2016년 매출원가가 3,000원 적게 계상되어 보고된 순이익은 3,000원 많으므로, 순이익에서 3,000원을 차감한다.

2016년 말 재고 오류: 기말상품재고가 2,000원 과대평가되어 매출원가에서 실제보다 2,000원을 더 차감했다. 따라서 **매출원가가 2,000원 과소계상**되고 순이익은 2,000원 과대계상되었으므로, 순이익에서 2,000원을 차감한다.

2014년 말 재고 오류: 2,000원 과소평가는 2014년 순이익을 줄이고 2015년 기초재고를 통해 2015년 순이익을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이 오류 자체의 손익 영향은 2015년까지 상쇄되므로 2016년 순이익에는 다시 반영하지 않는다.

수정 후 당기순이익은 25,000 − 3,000 − 2,000 = 20,000원으로, ④의 금액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13. (주)한국은 2016년 중 취득원가 ₩20,000인 토지를 ₩30,000에 처분하고 대금은 1년 후에 받기로 했으며, 장부금액 ₩60,000 (취득원가 ₩100,000, 감가상각누계액 ₩40,000)인 건물을 현금 ₩70,000에 처분하였다. (주)한국의 2016년 현금흐름표 상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은?

① ₩60,000

② ₩70,000

③ ₩80,000

④ ₩100,000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토지 처분대금은 1년 후에 받으므로 2016년 현금유입에 포함되지 않는다. 건물 처분으로 **실제로 받은 현금 70,000원**만 투자활동 현금유입액에 포함된다.

계산 과정

토지와 건물 같은 유형자산의 처분으로 받은 현금은 투자활동 현금유입에 해당한다. 현금흐름표에는 처분계약금액이나 처분이익이 아니라 해당 기간에 실제로 유입된 현금을 반영한다.

토지 처분: 취득원가는 20,000원이고 처분대금은 30,000원이지만, 대금을 **1년 후에 받기로 했으므로** 2016년에는 현금을 받지 않았다. 따라서 토지 처분에 따른 2016년 현금유입액은 0원이다.

건물 처분: 취득원가 100,000원에서 감가상각누계액 40,000원을 차감한 장부금액은 60,000원이다. 현금 70,000원을 받았으므로 처분이익은 70,000 − 60,000 = 10,000원이다. 그러나 투자활동 현금유입액은 이익 10,000원이 아니라 **받은 대금 전액인 70,000원**이다.

2016년 투자활동 현금유입액 = 토지 처분 현금유입액 0원 + 건물 처분 현금유입액 70,000원 = 70,000원으로, ②의 금액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14. 다음 자료를 토대로 계산한 당기총제조원가와 당기제품제조원가는?

◯ 기초직접재료재고액 ₩15,000
◯ 당기직접재료매입액 ₩50,000
◯ 기말직접재료재고액 ₩10,000
◯ 직접노무원가 발생액 ₩25,000
◯ 제조간접원가 발생액 ₩40,000
◯ 기초재공품재고액 ₩30,000
◯ 기말재공품재고액 ₩21,000
◯ 기초제품재고액 ₩15,000
◯ 기말제품재고액 ₩30,000

① 당기총제조원가: ₩110,000, 당기제품제조원가: ₩120,000
② 당기총제조원가: ₩120,000, 당기제품제조원가: ₩111,000
③ 당기총제조원가: ₩120,000, 당기제품제조원가: ₩129,000
④ 당기총제조원가: ₩129,000, 당기제품제조원가: ₩114,000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당기총제조원가는 재료 매입액이 아니라 **실제로 사용한 직접재료원가**에 직접노무원가와 제조간접원가를 더한 120,000원이다. 여기에 **기초재공품을 더하고 기말재공품을 빼면** 당기에 완성된 제품의 원가인 129,000원이 된다.

NoteBase

계산 과정

직접재료원가: 기초직접재료재고액과 당기직접재료매입액을 합한 금액 중 기말에 남은 재료를 제외하면 **당기에 사용한 직접재료**의 원가가 된다. 따라서 직접재료원가는 15,000 + 50,000 − 10,000 = 55,000원이다.

당기총제조원가: **당기에 발생한 제조원가**로, 직접재료원가·직접노무원가·제조간접원가를 합한다. 따라서 55,000 + 25,000 + 40,000 = 120,000원이다.

당기제품제조원가: 당기에 완성되어 재공품에서 제품으로 대체된 원가이다. 전기에서 넘어온 기초재공품 원가도 완성 대상에 포함되므로 더하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기말재공품 원가는 제외한다. 따라서 30,000 + 120,000 − 21,000 = 129,000원이다. 기초·기말제품재고액은 **매출원가를 계산할 때** 반영하는 자료이므로 당기제품제조원가 계산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당기총제조원가 120,000원과 당기제품제조원가 129,000원은 ③의 금액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15. (주)한국에는 보조부문에 수선부와 전력부가 있고, 제조부문에 A와 B가 있다. 수선부의 변동원가 당기 발생액은 ₩10,000이며, 전력부와 두 제조부문에 1,000시간의 수선 용역을 제공하였다. 전력부의 변동원가 당기 발생액은 ₩7,000이며, 수선부와 두 제조부문에 2,000kwh의 전력을 제공하였다. (주)한국이 보조부문 원가 중 수선부 원가를 먼저 배부하는 단계배부법을 사용할 경우, 제조부문 A에 배부되는 보조부문의 원가는?

제공 \ 사용	수선부	전력부	제조부문 A	제조부문 B
수선부(시간)	–	200	500	300
전력부(kwh)	500	–	1,000	500

① ₩11,000

② ₩12,000

③ ₩13,000

④ ₩14,000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단계배부법에서는 **배부를 마친 수선부에 전력부 원가를 다시 배부하지 않는다**. 전력부는 수선부에서 받은 2,000원을 포함한 9,000원을 A와 B에 배부하므로, A가 부담하는 보조부문 원가는 수선부 몫 5,000원과 전력부 몫 6,000원을 합한 11,000원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단계배부법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보조부문 원가를 배부하되, **이미 배부를 마친 부문은 이후 배부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법이다. 이 문제에서는 수선부를 먼저 배부하고, 이어서 전력부를 배부한다. 용역 제공량 표는 행이 제공 부문, 열이 사용 부문을 나타낸다.

수선부 원가 배부: 수선부가 제공한 용역은 전력부 200시간, A 500시간, B 300시간으로 총 1,000시간이다. 따라서 수선부 원가 10,000원을 각 부문의 수선 용역 사용시간에 비례하여 배부한다. A 배부액은 $10{,}000 \times \frac{500}{1{,}000} = 5{,}000$원이고, 전력부 배부액은 $10{,}000 \times \frac{200}{1{,}000} = 2{,}000$원이다. 이 2,000원은 전력부가 부담하게 된 수선 용역의 원가이므로 다음 단계의 전력부 배부원가에 더한다.

전력부 원가 배부: 전력부가 배부할 원가는 자체 발생액과 수선부에서 받은 금액을 합한 7,000 + 2,000 = 9,000원이다. 수선부에 제공한 500kwh는 배부 기준에서 제외하고, **A와 B에 제공한 1,500kwh**만을 기준으로 배부한다. A의 사용량은 1,000kwh이므로 A 배부액은 $9{,}000 \times \frac{1{,}000}{1{,}500} = 6{,}000$원이다.

제조부문 A의 총배부액: 수선부에서 배부받은 5,000원과 전력부에서 배부받은 6,000원을 합하면 11,000원으로, ①의 금액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16. (주)한국은 종합원가계산방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원가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한국의 완성품환산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직접재료는 공정의 초기에 전량 투입되고, 전환원가는 공정의 진행에 따라 균일하게 발생된다.
◯ 기초재공품의 완성도는 50%, 기말재공품의 완성도는 10%이다.
◯ 기초재공품은 2,000개, 당기착수 13,000개, 기말재공품 3,000개이다.

① 평균법의 직접재료원가 완성품환산량은 13,000개이다.
② 평균법의 전환원가 완성품환산량은 10,300개이다.
③ 선입선출법의 직접재료원가 완성품환산량은 15,000개이다.
④ 선입선출법의 전환원가 완성품환산량은 11,300개이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선입선출법의 완성품환산량에는 **당기에 수행한 작업량만** 포함한다. 기초재공품의 남은 전환작업, 당기착수·완성품의 전환작업, 기말재공품에 수행한 전환작업을 합하면 11,300개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완성품환산량은 미완성품에 수행한 작업량을 완성품 수량으로 환산한 것이다. 당기완성품은 기초재공품과 당기착수량을 합한 수량에서 기말재공품을 빼므로 2,000 + 13,000 − 3,000 = 12,000개이다. 직접재료는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되므로 기말재공품도 재료 투입 기준으로는 100% 완성된 상태이고, 전환원가는 공정 진행에 따라 발생하므로 주어진 완성도를 적용한다.

① X: 평균법은 전기와 당기의 작업량을 구분하지 않고 완성품과 기말재공품의 완성품환산량을 합한다. 직접재료는 **기말재공품에도 전량 투입**되어 있으므로, 직접재료원가 완성품환산량은 12,000 + 3,000 = 15,000개이다. 13,000개가 아니라 15,000개로 고쳐야 한다.

② X: 평균법의 전환원가 완성품환산량은 완성품 12,000개에 기말재공품의 전환작업량을 더한다. 기말재공품 3,000개는 전환작업이 10% 진행되었으므로 완성품 3,000 × 10% = 300개에 해당한다. 따라서 12,000 + 300 = 12,300개이며, 10,300개가 아니다. 평균법에서는 **기초재공품의 전기 작업량을 차감하지 않는다**.

③ X: 선입선출법은 당기에 수행한 작업량만 계산한다. 기초재공품 2,000개에는 직접재료가 전기에 이미 전량 투입되어 있으므로 **기초재공품을 완성하기 위한 당기 재료 투입량은 0개**이다. 따라서 직접재료원가 완성품환산량은 완성품과 기말재공품의 재료 환산량에서 기초재공품의 전기 투입분을 뺀 12,000 + 3,000 − 2,000 = 13,000개이다. 15,000개가 아니라 13,000개로 고쳐야 한다.

④ O: 선입선출법에서는 기초재공품의 **남은 전환작업 50%**만 당기 작업량에 포함하므로 2,000 × 50% = 1,000개이다. 당기에 착수하여 완성한 수량은 전체 완성품에서 기초재공품을 뺀 12,000 − 2,000 = 10,000개이며, 이 수량에는 전환작업 100%를 적용한다. 기말재공품의 당기 전환작업량은 3,000 × 10% = 300개이다. 이를 합하면 전환원가 완성품환산량은 1,000 + 10,000 + 300 = 11,300개이다.

NoteBase

문 17. (주)대한은 종합원가계산방법을 적용하고 있다. 직접재료는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되며, 전환원가는 공정 전반에 걸쳐서 균등하게 발생한다. 당기완성품환산량 단위당 원가는 직접재료원가 ₩60, 전환원가 ₩40이었다. 공정의 50% 시점에서 품질검사를 수행하며, 검사에 합격한 전체수량의 10%를 정상공손으로 처리하고 있다. (주)대한의 물량흐름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정상공손원가는?

기초재공품	1,000개(완성도 30%)	당기완성량	2,600개
당기착수량	3,000개	공손수량	500개
		기말재공품	900개(완성도 60%)

① ₩17,500

② ₩20,800

③ ₩28,000

④ ₩35,000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기말재공품도 완성도 60%로 검사시점 50%를 지났으므로, **검사합격수량 3,500개**를 기준으로 정상공손수량 350개를 구한다. 공손품에는 검사시점까지의 원가인 개당 80원이 발생하므로 정상공손원가는 **28,000원**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1. 검사합격수량: 품질검사는 공정의 50% 시점에 이루어진다. 기초재공품 1,000개는 완성도 30%이므로 기초에는 아직 검사를 받지 않았다. 당기완성량 2,600개와 완성도 60%인 기말재공품 900개는 모두 당기에 검사를 통과한 수량이다. 따라서 **기말재공품까지 포함한 검사합격수량**은 2,600 + 900 = 3,500개이다.

2. 정상공손수량: 정상공손 허용량은 **실제 공손수량이 아니라 검사에 합격한 전체수량의 10%**이다. 따라서 정상공손수량은 3,500 × 10% = 350개이다. 표의 공손수량 500개 전부를 정상공손으로 계산하지 않는다.

3. 공손품 1개당 원가: 공손품은 50% 검사시점에서 발견된다. 직접재료는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되므로 재료원가 60원은 모두 발생하지만, 전환원가는 균등하게 발생하므로 **전환원가의 50%만** 발생한다. 따라서 공손품 1개당 원가는 60 + 40 × 50% = 80원이다.

4. 정상공손원가: 정상공손수량에 검사시점까지 발생한 개당 원가를 곱하면 350 × 80 = 28,000원이다. 이는 ③의 28,000원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18. (주)대한은 A 투자안과 B 투자안 중에서 원가구조가 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하나의 투자안을 선택하고자 한다. 두 투자안의 예상 판매량은 각 100단위이고, 매출액 등의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두 투자안에 대한 비교 설명으로 옳은 것은?

	A 투자안	B 투자안
매출액	₩20,000	₩20,000
변동비	₩12,000	₩10,000
고정비	₩4,000	₩6,000
영업이익	₩4,000	₩4,000

① A 투자안의 변동비율이 B 투자안의 변동비율보다 작다.

② A 투자안의 단위당 공헌이익이 B 투자안의 단위당 공헌이익보다 크다.

③ A 투자안의 손익분기점 판매량이 B 투자안의 손익분기점 판매량보다 적다.

④ A 투자안의 안전한계는 B 투자안의 안전한계보다 작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손익분기점 판매량은 고정비를 단위당 공헌이익으로 나누어 구한다. A 투자안은 **50단위**, B 투자안은 **60단위**이므로 A 투자안이 더 적은 판매량으로 고정비를 회수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공헌이익은 매출액에서 변동비를 뺀 금액으로, 고정비를 회수하고 이익을 내는 데 쓰인다. 표에서 A 투자안의 공헌이익은 20,000 − 12,000 = 8,000원이고, B 투자안은 20,000 − 10,000 = 10,000원이다. 두 투자안의 예상 판매량은 각각 100단위이다.

① X: 변동비율은 매출액 중 변동비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A는 $\frac{12,000}{20,000} \times 100 = 60\%$, B는 $\frac{10,000}{20,000} \times 100 = 50\%$이다. 따라서 A의 변동비율이 B보다 **크다**.

② X: 단위당 공헌이익은 공헌이익을 판매량으로 나누어 구한다. A는 $\frac{8,000}{100} = 80$원, B는 $\frac{10,000}{100} = 100$원이다. 따라서 A의 단위당 공헌이익이 B보다 **작다**.

③ O: 손익분기점은 공헌이익으로 고정비를 전부 회수하여 영업이익이 0이 되는 판매수준이다. 따라서 손익분기점 판매량은 **고정비를 단위당 공헌이익으로 나누어** 구한다. A는 $\frac{4,000}{80} = 50$단위, B는 $\frac{6,000}{100} = 60$단위이므로 A의 손익분기점 판매량이 B보다 적다.

④ X: 안전한계는 예상 매출액이 손익분기점 매출액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손실이 발생하기 전까지 매출이 감소할 수 있는 여유를 뜻한다. 판매량으로 보면 A는 100 − 50 = 50단위, B는 100 − 60 = 40단위이다. 두 투자안의 단위당 판매가격은 모두 $\frac{20,000}{100} = 200$원이므로 안전한계 매출액도 A는 50 × 200 = 10,000원, B는 40 × 200 = 8,000원이다. 따라서 A의 안전한계가 B보다 **크다**.

NoteBase

문 19.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일반유형자산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해당 자산의 차감항목에 표시한다.

② 사회기반시설 중 관리·유지 노력에 따라 취득당시 용역잠재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감가상각하지 아니하고 관리·유지에 투입되는 비용으로 감가상각비용을 대체할 수 있다.

③ 유가증권은 부대비용을 제외한 매입가액에 종목별로 총평균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④ 재정상태표에 표시하는 부채의 가액은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만기상환가액으로 평가한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유가증권의 취득원가에는 매입가액뿐 아니라 **부대비용도 포함**한다. 따라서 ③의 '부대비용을 제외한'은 '부대비용을 더한'으로 고쳐야 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라 일반유형자산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해당 자산의 차감항목**으로 표시한다. 즉, 재정상태표에서 해당 일반유형자산의 금액에서 사용수익권 금액을 빼는 형태로 나타낸다.

② O: 같은 규칙 제38조제2항은 관리·유지 노력으로 취득 당시의 용역잠재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 관리·유지비용으로 감가상각비용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한다. 용역잠재력은 시설이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다. 다만, 효율적인 사회기반시설 관리시스템을 통해 그 능력이 취득 당시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된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경우에 한정**된다. 단순히 유지비를 지출했다는 이유만으로 감가상각을 생략할 수는 없다.

③ X: 같은 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취득원가는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을 기초로 종목별로 총평균법 등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총평균법 등은 같은 종목을 여러 차례 취득했을 때 원가를 산정하는 방법이며, 이를 적용한다고 취득부대비용이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선지의 오류는 취득원가에 포함할 부대비용을 제외한다고 한 부분이다.

④ O: 같은 규칙 제41조는 재정상태표에 표시하는 부채를 원칙적으로 **만기상환가액**으로 평가하도록 한다. 만기상환가액은 만기에 갚아야 할 금액이다. 다만, 규칙에서 별도의 평가방법을 정한 부채에는 그 방법을 적용하므로, 선지의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라는 조건을 함께 보아야 한다.

NoteBase

문 20. 다음 자료를 토대로 계산한 (주)대한의 매출총이익은?

◯ 당기 중 직접재료원가는 전환원가의 50%이다.
◯ 직접노무원가 발생액은 매월 말 미지급임금으로 처리되며 다음 달 초에 지급된다. 미지급임금의 기초금액과 기말금액은 동일하며, 당기 중 직접노무원가의 지급액은 ₩450이다.
◯ 재공품 및 제품의 기초금액과 기말금액은 ₩100으로 동일하다.
◯ 기타 발생비용으로 감가상각비(생산현장) ₩100, 감가상각비(영업점) ₩100, CEO 급여 ₩150, 판매수수료 ₩100이 있다. CEO 급여는 생산현장에 1/3, 영업점에 2/3 배부된다.
◯ 매출액은 ₩2,000이다.

① ₩1,050
② ₩1,100
③ ₩1,150
④ ₩1,200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재공품과 제품의 기초·기말금액이 각각 같아 **당기총제조원가 900원이 그대로 매출원가**가 된다. 매출액 2,000원에서 이를 차감한 매출총이익은 1,100원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1. 직접노무원가: 미지급임금은 기초금액에 당기 발생액을 더하고 당기 지급액을 차감하면 기말금액이 된다. 따라서 직접노무원가 발생액은 지급액 + 기말 미지급임금 − 기초 미지급임금이다. **기초·기말 미지급임금이 같으므로** 당기 발생액은 지급액과 같은 450원이다.

2. 제조간접원가: 생산현장 감가상각비 100원과 CEO 급여 중 생산현장 배부액을 포함한다. CEO 급여의 생산현장 배부액은 $150 \times \frac{1}{3} = 50$원이므로 제조간접원가는 100 + 50 = 150원이다. 영업점 감가상각비 100원, CEO 급여 중 영업점 배부액 100원, 판매수수료 100원은 **판매비와관리비**이므로 제조원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3. 전환원가와 직접재료원가: 전환원가는 재료를 제품으로 가공하는 데 드는 **직접노무원가와 제조간접원가의 합계**이다. 따라서 전환원가는 450 + 150 = 600원이고, 직접재료원가는 전환원가의 50%이므로 600 × 50% = 300원이다.

4. 당기총제조원가: 당기에 투입한 직접재료원가, 직접노무원가, 제조간접원가를 합한다. 당기총제조원가는 300 + 450 + 150 = 900원이다.

5. 매출원가: 당기제품제조원가는 기초 재공품 + 당기총제조원가 − 기말 재공품이므로 100 + 900 − 100 = 900원이다. 이어서 매출원가는 기초 제품 + 당기제품제조원가 − 기말 제품이므로 100 + 900 − 100 = 900원이다. **재공품과 제품의 기초·기말금액이 각각 같아** 두 단계 모두 재고 조정으로 인한 금액 차이가 없다.

6. 매출총이익: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차감하므로 2,000 − 900 = 1,100원이다. 판매비와관리비는 매출총이익을 계산한 뒤 영업이익을 구할 때 차감한다. 따라서 매출총이익 1,100원은 ②의 금액과 일치한다.

NoteBase